

도미니카 공화국, 파리클럽 채무 리스케줄링 타결

□ 파리클럽 채무 1억 9,300만 달러에 대한 리스케줄링 타결

- 4월 16일, 도미니카 공화국과 파리클럽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1억 5,500만 달러와 현재 연체중인 3,800만 달러(총 1억 9300만 달러)의 외채 원리금에 대한 리스케줄링에 합의함.
- 이에 따라 도미니카 공화국은 금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파리클럽에 대한 외채 원리금 지급부담이 4억 7,900만 달러에서 2억 9300만 달러로 크게 감소(1억 8,600만 달러)하였고, 향후 경제 전망과 외환 유동성 문제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리스케줄링은 지난해 8월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와 IMF가 체결한 2년 만기 6억 5,700만 달러의 IMF 대기성차관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임.
- 지난해 9월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가 IMF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력 배전회사의 재국영화를 강행한 이후 IMF의 차관 지원이 잠정 중단되었으나, 금년 2월 IMF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대한 1차 경제실사 결과를 승인함에 따라 IMF 지원 프로그램이 정상화되었음.
- o 2월 경제실사 이후 IMF가 6,600만 달러를 추가 집행함에 따라 4월 현재 IMF의 도미니카 공화국에 대한 대기성차관 집행액은 총 1억 9,700만 달러임.

□ 파리클럽 채무 리스케줄링 조건

- 도미니카 공화국에 대한 리스케줄링은 전통적 채무구제조건에 따라 일정기간(consolidation period) 동안에 만기 도래하는 채무만을 재조정하는 양허적 현금흐름 재조정(concessional flow rescheduling)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 o 파리클럽의 전통적 채무구제 방식은 ① 원리금상환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중 도래하는 채무의 상환을 연기해 주는 현금흐름 구제(cash-flow relief), ② 채무잔액 현가의 탕감 등 두 가지 조치를 통해 이루어짐.
- 채무재조정 대상 채무는 거치기간 5년을 포함하여 향후 12년간 분할 상환(최초 상환일 2010년 4월, 최종 상환일 2016년 10월)될 예정이며, 공적개발원조(ODA) 채무는 기존의 이자율 이상, 기타 채무는 시장 이자율로 리스케줄링될 예정임.
- 도미니카 공화국의 채무재조정 기준일(cut-off date)은 1984년 6월 30일이며,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 원칙에 따라 기준일 이후 채무는 이번 리스케줄링 대상에서 제외됨.
- 2004년 1월 1일 현재 도미니카 공화국의 파리클럽 채무는 15억 6,100만 달러이며, 이중 6억 8,700만 달러가 기준일 이전 채무(pre-cut off date debt)이며, 8억 7400만 달러는 기준일 이후 채무(post-cut off date debt)임.
- 향후, 개별 채권국과 도미니카 공화국은 양국간의 자발적 협의를 통해 스왑거래(debt for nature, debt for aid, debt for equity 스왑 등)를 포함한 방식으로 채무재조정 계약을 체결하게 됨.

- 이번 리스케줄링 협상에 직접 참여한 채권국은 파리클럽 채무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미국 등 5개국이었으며, 옵저버로서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이태리, 스위스, 영국, IMF, 세계은행, UNCTAD, OECD 등이 참여하였음.
- 파리클럽 채권단은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에게 경제개혁 프로그램의 기수절이 시체이 가조원연크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에 하키크러이 채권자 동등 대우 조건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약속함.

□ 향후 전망

- 이번 파리클럽과의 채무재조정 협상 타결로 도미니카 공화국의 외환 유동성 문제가 다소 개선되고, 환율인상 압력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o 2002년 초 15.1 페소로 시작한 페소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2002년 말에는 22.2 페소, 지난해 연말에는 37.3 페소까지 상승하였고, 금년 4월 현재는 45 페소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환율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지속으로 도미니카 공화국 경제는 지난해에 12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0.4%) 성장을 기록하였고,
- 금년에도 환율인상으로 인한 물가 폭등과 소비자들의 구매력 감소, 전력난 지속, 5월 대선 정국 등으로 인해 내수 부문의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금년 5월 실시 예정인 대선에서는 야당인 도미니키 해방당(PLD)의 전직 대통령 페르난데스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o 최근 여론조사 결과, 페르난데스의 지지율이 52%로 가장 높고, 여당인 도미니카 혁명당(PRD)의 메히아 대통령이 25%, 기독교사회개혁당(PRSC)의 에두아르도 에스트레야 후보가 17%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페르난데스 후보가 과반수 이상의 득표에 실패할 경우 선거법에 따라 결선투표가 실시되며, 이 경우 2, 3위 후보의 연합 여부 등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음.

책임연구원 김영석(☎3779-6653)
E-mail : claudio@koreaexim.go.kr